

제17대 대통령 후보 합동 토론 언어네트워크 분석

북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박성희*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대통령 후보 합동 TV토론은 후보들의 정책과 인성의 상호 검증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의 대통령 선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선거 캠페인이다. 본 연구는 제17대 대통령 후보들이 TV합동토론에서 상호 교환한 어휘군(群)의 연결망을 언어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와 UCINET을 통해 분석하고 단어의 사용과 단어 간 거리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정치 토론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후보 간 입장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세 후보의 상호토론에는 중심 논제의 구성이 본래 토론이 지향하는 상호이해의 구성요건인 점점(stasis)을 형성하기에 부적합하고, 단어의 선택과 사용빈도에서 생산적인 공방이나 토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한계를 노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관련 이슈 8개 단어들의 공출현 단어 간 거리 분석(co-occurrence matrix) 결과, 각 후보가 연결시킨 단어들 간의 관계를 통해 입장의 차이를 도식화할 수 있었다. 이명박 후보는 북한 문제를 남한과의 상대성에서 파악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회창 후보는 한-미간의 관계 틀 안에서 북한 문제를 고려하고 북한문제와 핵문제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동영 후보는 북한의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 개념화하고 북한과 전쟁을 연결 짓지 않는 특징을 나타냈다.

주제어: 대통령선거, TV토론, 북한, 공출현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

1. 문제의 제기

토론(debate)은 청중에게 다양한 관점과 그 관점을 지지하는 설득적인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적 효과에 목적이

* shpark1@ewha.ac.kr

있었다. 토론의 어원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뜻의 라틴어 ‘debatum’에서 유래한 것에서도 보듯, 토론은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를 통해 대중의 합의를 유도하는 사회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상호 논리의 비판이나 논박의 증거 제시 등을 포함하는 토론의 전 과정이 민주적인 숙의와 의사 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정치 캠페인으로 꼽히는 후보자 TV토론 역시 유권자들의 숙의(deliberation)와 담론(discourse)을 유도하는 장치로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각국에서 사용되어왔다. 19세기 링컨-더글라스 디베이트의 전통을 지닌 미국에서는 1960년대 케네디와 닉슨의 TV토론을 시작으로 미디어 선거 시대를 개막했고, 서구 유럽 국가는 물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와 남미 지역에서 후보토론을 선거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이른바 ‘운동장 선거’를 미디어를 통한 ‘안방 선거’로 전환하면서 정당연설, 정치광고와 함께 TV토론의 개최를 법조항으로 신설하여 199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함께 199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친 대만이 선거에 TV토론을 도입했고, 2000년에는 남미에서 최초로 멕시코 대통령 후보 TV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토론이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유는 첫째, 쟁점과 후보자들의 자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제공하고, 둘째,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선거과정 및 정치 일반에 참여를 증대시키며, 셋째, 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소속의식을 고취시켜 강한 민주주의 실현시키는(Lemert, 1993; Best and Hubbard, 1999; Barber, 1984) 등의 정치사회적 기능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TV토론은 민주주의의 요건인 대중의 집단적 숙의(collective deliberation)를 가능하게 해 선거의 최종 결과물로 이어진다. 이준웅(1999)은 TV토론이 후보 지지도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효과 역시 다차원적이며 실체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으며, 김환열(1999), 정성호(2003), 이강형(2004, 2007) 역시 실증 연구를 통해 토론이 유권자의 인식과 후보 이미지에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송종길(2006)은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대한 영향을, 이현숙(2006)은 TV토론 노출과 유권자

만족도, 투표 의향 사이의 관계 모형을 각각 규명함으로써 토론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입증했다.

재미슨과 버드셀(Jamieson & Birdsell, 1988)은 선거인단이 광고나 여론조사보다 토론의 결과에 설득될 준비가 되어있다(pp.5~6)고 했으며, 데이비스 등은 연구를 통해 부동층에 TV토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냈다(Davis, 1979; Geer, 1988; Kelley 1983; Pfau, 1988). 시어스와 채피(Sears & Chaffee, 1978)는 정치 시스템에 미치는 TV토론의 몇 가지 잠재기능 중 미성년의 정치사회화, TV토론의 제도화,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신뢰성 등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대통령 후보 토론이 정치 시스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혜택을 받아왔다고 결론짓고 있다. 베노이트 등은 다양한 포맷의 정치담론이 유권자가 스스로 맘에 드는 후보를 선별하고 투표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Benoit, Blaney & Pier, 2000).

전술한 토론의 정치사회적 효과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TV리는 매체적 특성과 토론의 규범적 한계, 토론문화에 대한 사회적 적응도 때문에 현재의 후보 토론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개선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효성(1993), 김재범(2002), 황근(1999) 등이 TV토론의 중요성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했으며, 권혁남(1998), 임태섭(2001), 송종길(2003) 등은 이상적인 포맷과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인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클라우스(Kraus, 2000) 역시 대통령후보 토론이 정치사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특히 향후 개선점 발견을 위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토론의 역사가 비교적 긴 미국에서는 TV를 통해 중계된 후보 토론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수사학자들의 텍스트 분석, 정치비평가들의 비평 등 연구 및 기록 활동이 활발하며, 연구의 주제들도 유권자들의 정치사회화, 미디어로서 토론의 영향, 토론 내용의 수사 분석, 후보자들의 이슈와 이미지 매니지먼트 전략, 토론의 제도적 법적 측면 등으로 다양하다.

본 논문은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정치 캠페인으로서 TV토론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고 정책 선거를 이끄는 토론의 교육적 효과를 규명하여, 향후

바람직한 토론의 정착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토론에 임한 후보들에게 주어진 논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들의 단어 선택과 사용의 수사학적 함의에 기초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 수사학적 함의란 논쟁의 주요 구성요소이자 실제 토론이 이루어지는 개념적인 장소인 ‘접점(stasis)’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다자간 토론이라는 현행 토론의 포맷이 갖는 접점형성의 문제점이나 후보자 간의 역학과 전술에 따른 토론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접점의 분석은 선거 이슈 및 정책 논쟁의 기능을 수행하는 TV토론을 위한 논제의 개발이나 충돌하는 관점의 상호 이해와 설득을 지향하는 토론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TV토론과 공론장

선거 캠페인은 이슈와 이미지의 두 축으로 구성되며, 유권자에 대한 설득은 양 축에서 모두 이루어진다(Trent & Friedenber, 2000, p.255). 본 논문은 이미지의 경연장이 아닌, 이슈 공론장으로서의 TV토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TV 매체가 갖고 있는 공적 성격을 프라이스(Price, 1995)는 공공재로서의 방송의 특징에서 찾는다. 공공재인 전파를 소통의 채널로 사용하는 TV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선전의 수단이 되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남아공이나 프랑스 등에서 채널 허용 범위나 내용을 규제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p.10). 프라이스는 민주적인 참여에 가치를 두는 사회는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체제와 정치체제의 연계를 추구하며, 민주주의가 공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후보가 공평하게 TV시간을 할당받고, 누가 토론의 중재자로 나서며, 토론의 강제성이 있는가 등의 규칙이 면밀하게 엄수되어야 한다고 했다(p.21).

매체로서의 TV가 대통령 후보 토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헬weg(Hellweg, Pfau, Bryden, 1992)은 후보토론이 대중이 사적으로 경험하는 고유한 TV 이벤트(unicquely television events)라고 지적했다(p. xxi). 드러커(Drucker, 1989)는 TV가 토론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제공하는 “전자 공적 공간(electronic public space)”이라고 명명하고, 토론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토론”이라고 불렀다(p. 7). 이는 TV토론이 그 자체로서 미디어적 상황을 만들어내 선거와 관련된 담론들을 양산하는 기제로 기능하며, 논쟁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논쟁에 개입하여 토론의 틀을 구축하고, 나름의 사각과 견해를 제시하며, 자신의 요구와 목적에 맞게 토론을 주도해낸다는 김응숙(2002, 53쪽)의 지적과도 부합한다. 그 결과 시민들의 정치적 결정과 미디어의 역할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만큼 TV는 시민들의 정치적 삶의 한 축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라디오와 TV 등의 전파매체는 초기에 오락적 성향이 강했으나, 20세기 들어 토론과 결정을 이끄는 중요한 기제로 기능이 확대되어 공론장을 논의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Price, 1995, p. 27). 방송이 때론 공론장의 환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독자나 시청자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 현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하버마스가 주창한 이상적인 언론 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을 이끌어내며, 사상의 탐험과 공적 견해의 결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담론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TV토론이 공론장 형성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가 여부는 결국 시청자가 얼마나 개어 있는 공중으로서 시민의 역할에 충실한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앵(Ang, 1991)은 독일과 영국 공영방송의 사례를 들어 ‘시청자 공중(audience-as-public)’의 역할에 주목했다.

TV토론이 공적 담론을 생성하는 기능의 장단점은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 측면에서 각각 논의될 수 있다. 라자스펠드와 머튼은 미디어의 마취기능을 언급하며 다양한 정치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미디어 과잉 시대의 정치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조장해 오히려 민주주의의 실천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Lazarsfeld & Merton, 1948). 미디어 사회학자들은 현대 미디어가 시민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공공업무에는 적게 관여하도록 조장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라쉬(Lasch, 1990)는 언론의 객관성 추구 전통이 성립된 이래 투표율이 줄곧 감소해온 추세에 주목하면서, 계량적 균형에 초점을 둔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에 기초한 의견보도가 공동체의 관심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참여 욕구를 높여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토론 프로그램의 순기능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와 일반대중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적 의미에 비중을 둔다. 뉴컴과 허쉬(Newcomb & Hirsh, 1984)는 TV토론이 형성하는 하나의 문화적 포럼에서 특정 관점이 옹호된다고 하더라도 논쟁이 방송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반응과 모순된 해독이야말로 우리를 다중의 의미로 이끄는 것(p.68)”이라고 했다. 그의 논리를 연장하면 후보자 TV토론에서 특정 후보의 입장이 부각되거나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회와 가능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지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완벽한 의사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호작용적 토론 유형이 협상되는 곳, 그리고 통일된 단일한 공중이 아니라 다양한 공중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라는 김응숙(2002, 57쪽)의 해석은 참여적 관점에서의 TV토론의 문화적 의미를 환기시켜준다.

정치 홍보 전문가들에 의해 윤색되고 기획된 정보들 틈에서 후보들이 직접 출연하여 질문에 답하는 TV토론은 후보들 간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대중의 설득을 유발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1987년 갤럽조사(Gallup, 1987, p.35)에 따르면 72%의 유권자가 88년 선거에서 후보 토론을 보기를 원했으며, 타임 미러(Time-Mirror)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1988년 선거에는 48%, 1992년 선거에는 70%의 투표자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TV토론이 유용했다고 응답한 것은 토론의 늘어나는 영향력을 뒷받침하고 있다(Kraus, 2000, p.2).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TV토론은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권혁남(1998)은 어떠한 다른 매체보다도 유권자들에게 풍부하고, 제3자에 의해

걸리지거나 변형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가 직접 채취하여 후보들에 대한 판단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TV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7년 대통령선거 직후 한국방송공사 정책연구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1550명 가운데 91.6%에 이르는 응답자가 “텔레비전 토론이 돈 안 드는 선거를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대답했으며, 84.6%의 응답자가 “텔레비전 토론이 공정한 선거를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답해 TV토론의 유용성을 지지했다(이준웅, 1999).

2) 논증(argumentation)으로서의 토론: 접점이론과 중심논제

상호검증토론(cross-examination debate)의 원형인 대화법을 주창한 플라톤은 논증을 가리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포괄적인 예술’(Plato, Phaedrus, p.261)이라고 칭했다. 훗날 수사학자들은 논증(argumentation)을 ‘증거(evidence)가 수반된 주장(claims)’이라고 개념 정립하였는데, 토론은 이러한 논증의 논리가 다양한 포맷으로 구현된 결과이다.

토론이란 제기된 논제에 대한 옹호·반박을 통해 개인이나 그룹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루도록 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Freeley & Steinberg, 2005, p.4). 토론은 찬성과 반대 논리를 청중들에게 전달하여 청중들의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고 제기된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논리가 합리적이고 설득적인 증거를 수반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국내의 경우 후보 토론 관련 연구 주제는 TV토론의 정치성과 문제점, 유권자 행위와 인지에 미치는 토론의 영향, 토론의 효과적 모형과 포맷의 구축, 토론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내용 및 담화분석 등의 네 갈래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논증으로서의 토론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실제 토론 텍스트를 대상으로 담화분석이나 수사분석 등 다양한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송종길(2004)은 베노이트와 웰스(Benoit & Wells)의 공격과 방어 개념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후보 간 충돌(clash)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결론을 맺고 있으며, 김관규·박연진(2007) 역시 베노이트와 웰스의 개념을 활용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가 대체로 공격적 전략을 구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김춘식과 전영란(2006)은 1997년 대통령 후보 TV토론 수사 분석을 통해 주장-공격-방어의 순서로 언술을 구사하며, 인간적 특성보다는 정책에 초점을 둔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최윤선(2003)은 16대 대선 후보 합동토론에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언술전략을 각각 탈개인화 전략과 개인화전략으로 분석했으며, 임규홍(2001)은 발언권 주고 빼기의 담화분석을, 박석준(2002)은 이미지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한 대화전략을 시도했다.

외국에서 역시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논증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시도는 적지 않다. 엘스워스(Ellesworths, 1965)는 1960년 닉슨-케네디 토론을 분석하여 토론 내용의 4분의 1이 증거적 자료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의 분명한 입장과 함께 그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냈다(p.794). 켈리(Kelley, 1962)는 후보들이 즉각적인 반박을 해야 하는 동시 토론 상황이 더 명확한 발언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했으며, 몰튼슨(Mortensen, 1968)은 후보가 주도하는 발언보다 언론이 중재하는 형태의 토론에서 후보들이 더 사실적 증거와 이유를 들어 설득하는 경향을 보였다(p.281)고 했다. 비처와 로이터(Bitzer & Reuter, 1980)는 1976년 포드-카터 토론이 논증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들의 토론에 증거와 합리적 설명이 부족했고 피상적이었다(p.4)고 분석했다. 1980년 후보 토론을 분석한 리터와 김슨(Ritter & Gibson, 1981)은 레이건의 ‘스타일’과 카터의 ‘내용’이 맞선 토론에서 레이건이 우세한 전략적 이유를 분석했으며(p.58), 티멘즈 등은 그들의 공격방어 전략을 분석하여 카터가 레이건을 21번 공격하며 1회 반박한 것에 비해, 레이건은 카터를 16번 공격하고 14번 반박했다고 분석했다(Tiemens, Hellweg, Kipper & Phillips, 1985). 모렐로(Morello, 1990)는 1988년 부시-두카키스 토론에서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논증적 오류인 ‘인간성에 의한 오류(ad hominem)’가 있었음을 밝혀냈다(p.26).

재미슨(Jamieson, 1992)은 논증으로서의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캠페인 커뮤니케이션이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기반한 증거 제시, 반대 주장의 비교, 사실의 제시, 공유된 신념 등의 논증 기법을 더욱 활용해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럼으로써 후보 간 입장이 더욱 명확해지고, 해당 공동체가 더욱 합리적인 사고와 질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p.218).

설득적 논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다른 입장사이의 접점(stasis)이 형성되어야 하며, 접점을 이루는 주체는 증거들이어야 한다. 토론에서의 접점, 혹은 상호 다른 입장의 부딪침(clash)이 증거가 아닌 화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토론은 ‘인간성에 의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슈를 내포한 중심논제가 있어야 하고, 찬반 양측으로 나뉜 토론의 당사자는 합리적인 증거를 들어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토론 참가자는 따라서 서로 증거라는 무기로 서로 맞서며 우월적 지위를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청중에게 대한 설득효과를 발휘한다.

접점에 대한 수사학적 조명은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자인 헤르마고라스는 논쟁을 이끌고 나갈 이슈를 발견하는 장치로 접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서 접점이란 그리스어로 질문, 혹은 이슈를 뜻했다.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라틴어로 지위를 뜻하는 ‘status’, 함께 있는 발판을 뜻하는 ‘constitutio’로 의미가 진화한다. ‘접점이론’이란 모든 논쟁에서 상호 의견이 분기되는 지점의 이슈들을 찾아내는 틀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첫째, 용어의 정의를 공유하는가, 둘째, 공정한 어휘를 사용하는가, 셋째, 이슈를 둘러싼 사실 관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가, 넷째, 정상 참작의 여부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근대 수사학자들이 개발한 스톡 이슈모델(Stock issues model)이 정책 논쟁에 유용하게 사용된 것에 비해 접점이론은 고대부터 가치논쟁이나 사실논쟁에서 논점의 정확한 위치(locus of controversy)를 찾아내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왔다(Fahnestock & Secor, 1983, p.138).

접점 이론에서 토론 쌍방 간의 언어에 대한 의미 공유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어휘를 사용하며, 그 어휘에 대한 정의에 동의하는가가 성공적인 토론의 요건이 된다. 토론자에게 주어지는 중심 논제가 접점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토론자는 각기 다른 입장과 견해를 증거나 이유와 함께 피력하되 의견의 분기점(접점)에서는 서로 만나야 한다. 접점은 토론자들 사이의 공격과 방어, 그리고 공손함(facework)을 관찰할 수 있는 개념적 장소이

다. 아우어(Auer, 1960) 역시 디베이트가 갖춰야할 필수 요건으로 ① 대립(confrontation), ② 동일하고 적절한 시간(equal and adequate time), ③ 짝을 이루는 토론 당사자(matched contestants), ④ 중심논제(stated proposition), ⑤ 청중의 결정(audience decision)을 지적한 바 있다.

중심논제란 ‘접점’을 중심으로 한 토론의 기능적인 의제, 즉 토픽을 말한다. 고대 수사학자들은 토픽의 원형이 되는 토포이(topoi) 혹은 토포스(topos)를 토론 당사자 사이의 공통분모로 포괄적으로 접근했다. 어떤 논제를 선택하는 데 따라 토론의 기본 전제가 된다. 20세기에 들어 정책 논쟁의 수요가 증가하자 근대 수사학자들은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 질문 형태의 중심논제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논제에 대한 입장이 명백하게 예, 아니오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논제가 제안하는 변화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며, 셋째, 방향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고, 넷째, 여러 이슈를 섞지 말고 한 가지 이슈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질문을 던지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에 공평한 룰이 적용되어야 한다(Vancil, pp.35~37).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의 중심논제를 분석한 학자로는 1976년 후보 토론에서 던져진 질문을 분석한 그레이브리 등(Gravelee, Irvine & Vancil, 1976)과 같은 토론에서 질문의 접점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밝힌 비처와 로이터(Bitzer & Reuter, 1980), 포드-카터 디베이트에서 패널리스트들이 현직 후보에게 더 어려운 질문을 했다는 결과를 밝힌 브라이든(Brydon, 1979)이 있다. 또한 맥콜(McCall, 1984)은 1980년 레이건에게 던져진 질문을 통해 중심논제가 갈라지는 현상을 지적했고, 라이언(Ryan, 1990)은 1988년 패널리스트 질문이 지엽적으로 흐르는 문제점을 지적했다(Hellweg, Pfau, Brydon, pp.53~55).

3.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 연구문제 1. 제17대 대선 후보들 사이의 논제는 접점(stasis)을 형성하기에 적합한가? 즉 논제를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부딪치며(clash) 입장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가? (논제를 통한 접점의 형성)
- 연구문제 2.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세 후보의 단어 선택과 사용빈도에 따른 접점은 존재하는가? 즉 상호 동일한 단어를 유사한 빈도로 공유하며 논리를 전개하는가? (단어를 통한 접점의 형성)
- 연구문제 3. 각 후보가 구사하는 주요 어휘군 사이의 연결망에 따른 이슈 구성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 비교적 관점에서 각 후보들은 자신의 주장을 증거를 들어 논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단어 연결망 분석)

4.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7년 12월 6일 정치-통일-외교-안보를 주제로 열린 1차 후보 합동 토론에서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의 발언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주제별로 3회 개최했다. 2차 토론회는 12월 11일 사회·교육·문화·여성분야, 3차 토론회는 12월 16일 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에 대해 각각 개최되었으며, 토론회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토론회는 각 후보별 기조연설, 한반도 주변국가와 현안문제를 다룬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후보자 간 상호토론, UCC 동영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토론회의 전 과정을 녹취 후 풀어서 정리한 후, 세 후보가 발언한 내용을 분리하여 텍스트를 구성했다. 세 후보를 선택한 것은 토론회의 상호 논박 여부(접점의 형성)에 초점을 둔 연구목적에 따른 것으로,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포함, 위의 세 후보가 당시 여론조사 상위 후보로 구성되어 상호경쟁구도를 상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회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첫째 주제가 통일·외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동일 사안에 대한 후보 간 어휘 선택을 쉽게 비교할 수 있고, 둘째, 답변 시간과 진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셋째, 사전에 준비된 내용과 형식으로 인해 후보자들의 순발력보다는 정책과 관련된 정제된 어휘들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세 후보의 1차 토론 텍스트를 분리한 결과 이명박 후보가 사용한 단어는 총 733개, 정동영 후보는 842개, 이회창 후보는 799개로 구성되었다. 같은 시간에 동일한 주제로 말하게 했을 때 정동영 후보가 가장 많은 단어로 이야기했고, 이명박 후보가 가장 적은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회창 후보가 그 중간이었다. 본 연구는 그들이 사용한 총 2,374개의 단어 중 의미가 없이 분리된 단어(‘이’, ‘그’, ‘저’ 등의 관사와 ‘등’, ‘것’ 등의 접미어, ‘않는다’, ‘한다’, ‘있다’에서 파생된 문장의 어미, ‘그러나’, ‘그런데’, ‘그렇다면’, ‘특히’ 등의 접속사)를 제외한 고유어를 빈도 분석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고유어의 개수는 이명박 후보 646개, 이회창 후보 627개, 정동영 후보 649개였다. 토론 시간과 주제가 사전에 통제되어 있는데다, 고유어 간 숫자의 차이가 본래 사용단어 사이의 차이보다 근소해 별도의 행렬 간 표준화 작업은 하지 않았다.

5. 연구방법

1)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연구자는 각 후보별 고유단어의 사용빈도와 단어 간 연결망을 보기 위해 컴퓨터 내용분석 방법의 하나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다. 언어 네트워크 혹은 언어 연결망 분석은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는(Wasserman & Faust, 1994)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적용한 방법론으로, 공유된 의미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언어가 인간의 기억 속에 층위적으로 균집한다는 학습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Collins & Quillian, 1972). 언어, 즉 상징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는 인지적 요소로 구성된 사회 시스템으로 간주(박한우, Leydesdorff, 2003)되며, 언어 사이의 공간적 관계는 특정한 의미의 표상을 나타낸다(Barnett & Woelfel, 1988).

특정한 단어의 사용 빈도와 단어들 사이의 관계가 메시지의 의미와 논리를 구성한다는 데 주목한 본 논문은 핵심어와 함께 공출현 단어들의 거리를 추출해내기 위해 내용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박한우 & Leydesdorff, 2003)를 이용한다. KrKwic는 레이데스도르프가 개발한 풀텍스트(FullText) 소프트웨어를 한국어 분석을 위해 변형한 것이다. 각 메시지 속의 단어를 등장 빈도순으로 정리해주는 단어빈도분석(word frequency analysis)은 어떠한 언어적 상징이 해당 메시지에서 현저하게(salient) 사용되고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유용한 1차 데이터가 된다.

연구자는 단어 빈도수 추출 후 각 후보자 별로 데이터 행렬을 구성한 후 공출현 매트릭스를 계산하기 위한 핵심 단어 8개를 선정한다. 단어의 선정은 세 후보가 공히 사용한 단어 중에서 북한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했으며, 이는 북한 이슈를 논하기 위해 불가피 하게 사용해야 하는 단어 간의 연결을 보는데 유용하다. 단어 간 거리 데이터는 공출현 빈도에 따라 가중치를 준 reversed Euclidean distance로 산출한다. 연구자는 이와 함께 각 후보별 사용횟수가 3회 이상으로 비교적 높거나 후보별 정책 기조의 핵심어 등을 포함하여 통일 외교 정책을 구성하는 단어 24개를 확대 선정해 전체 토론에서 상호 후보들 간의 단어의 공유와 그를 통한 접점의 형성을 검토한다. 핵심 단어 사이의 거리와 연결망 분석을 시각화하기 위해 공출현 빈도에 따라 관련 단어들 사이의 길이에 비례하여 반복적으로 재배치한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UCINET 프로그램(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의 넷드로(NetDraw)기능을 활용하도록 한다.

2) 수사분석(Rhetorical Analys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단어 빈도 분석과 공출현 연결망은 핵심어의 현저성과 근접성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나, 어떤 내용분석 소프트웨어도 메시지의 의미체계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는 없다(박한우, Leydesdorff, p.1385). 따라서 연구자는 후보 간 토론회의 2차적 분석을 위해 토론회의 유용성은 각기 다른 논점의 분기점(혹은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고대 논쟁 이론(stasis theory)을 바탕으로 수사 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서 수사 분석의 단위는 단어를 통한 의미의 공유가 된다. 상호 논박에는 언어 및 정의의 공유, 찬-반의 분기점 존재에 대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사 분석은 이 같은 동의와 의미의 공유가 후보 간 토론회에서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필요하다.

수사 분석에서 단어는 중요한 탐구의 단위로 기능한다. 단어의 선택은 수사학적 힘을 동반(Hart, p.156)하기 때문이다. 화자는 특정한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말의 효용성을 피하고, 청중을 향한 설득적 힘을 발산한다.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의 논제를 강조하고 청중에게 단어를 각인시키려고 시도한다. 단어는 고유의 개성과 역사가 있으며, 따라서 특정 단어를 접함으로써 사람들은 일체감을 느끼고, 동일한 이미지를 연상하며, 시대정신을 학습하기도 한다. 위버(Weaver, 1953)는 이러한 단어들을 ‘궁극적 용어들(ultimate terms)’이라고 불렀다. 1950년대에 조 매카시 상원의원이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이 ‘공산주의자’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각각의 특질을 하나로 흡수한 것이 여기에 속한다(Hart, p.159).

단어는 또 화자가 이슈화하려 하는 논제를 점유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토론 당사자들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어가 표상하는 이슈나 논제의 의미적 정의에 상호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 단어의 선점은 따라서 이슈의 선점과도 연관되며, 상이한 어휘의 구사는 토론에서의 접점 형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선거기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택된 단어와, 그 단어의 활용 빈도는 후보의 정책과 이념의 기초, 강조하는 이슈의 현저성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박한우와 레이테스도르프(2004)는 단어 빈도 분석이 선거기간에 후보들의 연설문에서 추출한 단어 목록들을 비교하여 각 후보가 강조하는 정치 이슈를 파악 할 수 있는 방법론적 장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단어 분석방법에 착안, 도어펠과 마쉬(Doerfel, Marsh, 2003)는 단어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1992년 부시-클린턴-페로 대통령 후보 디베이트에서 이슈의 포지셔닝을 규명했고, 림(Lim, 2002)은 단어 내용분석 소프트웨어인 General Inquirer를 이용해 1789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 대통령의 취임연설과 주요 연설문 264개를 분석, 세기별 대통령의 이념 성향 변화추이를 분석해냈다. KrKwic를 정치현상에 적용한 논문으로는 대권 예비 후보자 관련 신문기사를 네트워크 분석한 남인용·박한우의 논문(2007)이 있다.

연구자는 세 후보가 공평하게 노출된 논제가 점점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지 알아보고(논제를 통한 점점의 형성), 주요 단어의 사용빈도에서 나타난 점점을 살펴봄(단어의 사용을 통한 점점의 형성), 각 후보별 단어 연결망에서 미사용 단어와 연결 구조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 해석한다.

6. 연구결과

1) 논제를 통한 점점의 형성

정치, 외교, 통일, 안보를 주제로 열린 제1차 후보토론회의 논제는 모두 세 가지로, 사회자의 질문 <주제 1>, 후보들의 상호 질문 <주제 2>, UCC 동영상 질문 <주제 3>의 형식으로 각각 주어졌다. <주제 1>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주변 국가와 역사적으로 복잡한 문제, 즉 동북공정이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물음의 형태로 던져졌다. 이 물음은 반실(Vancil)이 제기한 고전적인 논제의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적합하다. 우선, 명백하게 예, 아니오로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논제가 아니며,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개방형 질문에 변화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동북공정과 독도 문제 등 여러 이슈를 섞은 것은 한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룰에 위배된다. 던져진 논제 자체가 초점과 방향성을 결여했을 경우 토론자 간의 접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토론은 일반적인 견해의 피력이나 미약한 대립구조를 이끌어내는 데 그치기 쉬워 대중 설득의 강도와 집중도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주제 2>는 각 후보자 모두 발언 후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모두 발언자의 반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의 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이었다. 여기서 이회창 후보는 “북핵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우리의 당면과제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한반도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이명박 후보는 이에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반면, 정동영 후보는 “생각과 철학이 다르고, 시대착오적이다”고 반론을 제기했으나 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마지막에 “말씀 듣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라는 요지의 재반론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명박 후보는 이회창 후보가 접근한 북핵문제를 논박이 필요 없는 이슈(admitted issue)로 받아들여 접점을 형성하지 않았고, 정동영 후보는 핵문제의 중요성이나 해결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박보다는 대북 정책의 기본 철학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접점 형성을 피해갔다.

이명박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6자회담이란 공조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인도적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으나, 이에 정동영 후보는 “좋은 말인데 기본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말은 신뢰가 없다”고 일축했고, 이회창 후보 역시 “이 자리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무늬만 보수와 보수가 아니다”라며 일관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내용자체보다 화자의 캐릭터를 문제 삼는 논리적 오류(ad hominem)를 범하고 있다. 이어 모두 발언에 나선 정동영 후보는 남북문제라는 토론의 주제에서 벗어나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냈는데, 검찰이 이명박 후보 품에 안겼다”는 요지의 논지를 펴으로써 이슈 자체를 달리해 접점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주제 3>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방안과 제도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자의 질문은 “내각 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는 뭐라고 생각하나”였다. 이와 같이 견해의 자유로운 피력을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은 토론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논거를 수반한 토론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아우어(Auer)와 반실(Vancil) 등이 앞서 지적한 토론의 기본 요건에 위배된다. 기본 요소를 갖추지 못한 개방형 논제는 난상토론으로 이어지기 쉽고, 접점에서의 논거의 대립이 불필요하므로 후보 간 입장의 차이나 그 근거를 정교하게 비교해 파악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후보자 합동토론에서 제기된 논제들은 후보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논의의 분기점, 즉 접점을 적절하게 제시해주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토론에 임하는 후보들 역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데 상대방의 입장을 준거로 활용하기보다는 캐릭터 공격이나 이슈를 달리하는 등의 기법으로 토론의 요건을 빗겨가고 있다. 그 결과 후보 토론에서의 중심논제들은 토론과 논쟁을 주도하기보다는 각 후보의 포괄적인 정견 발표를 유도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단어의 사용을 통한 접점의 형성

1차 토론 텍스트를 분리한 결과, 관사, 접속사, 문장의 어미 등을 제외하고 고유어의 개수는 이명박 후보 646개, 이회창 후보 627개, 정동영 후보 649개로 각각 나타났다. 세 후보가 같은 시간에 사용한 단어의 개수는 비슷한 반면, 그들이 선택한 단어와 빈도는 차이를 나타냈다. 최다 빈도 단어로 이명박·이회창 두 후보는 공히 ‘핵’을 선택(이명박 후보 14회, 이회창 후보 23회), 한 이슈에 대해 동일한 비중으로 거론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정동영 후보는 최다 빈도 단어로 ‘이명박(17번)’을 선택하고 특정 후보의 캐릭터에 중점을 두었다. 정 후보는 토론의 주제인 통일 외교 등의 중심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검찰(10번), 신뢰(8번), 대통령(7번) 등의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이명박 후보의 신뢰성과 도덕적 자질 쪽으로 중심 이슈를 재구성 하는 단어 선택의 양상을 나타냈다. 이명박 후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라는 단어를 5번 언급했다.

이회창 후보는 ‘핵’이라는 단어를 세 후보 중 가장 많은 23번이나 사용했는데, 북한 이슈를 핵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북한’(9번)과 ‘미국’(8번)을 거의 비슷한 빈도로 언급했으나 ‘대한민국’은 3번 언급하는 데 그쳐 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읽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후보 역시 ‘핵’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나 14번으로 이회창 후보에 비해 적었고, 북한(13번)과 대한민국(12번)을 비슷한 빈도로 언급했다. ‘미국’은 두 차례 언급하는데 그쳐 이회창 후보와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명박·이회창 두 후보는 ‘핵’을 중심으로 이슈를 인식하고 있는 것에는 동일했으나, ‘핵’과 ‘미국’, ‘핵’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이 단어 빈도 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단어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 볼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남북’(11번), ‘한미’(7번), ‘북미’(6번) 등의 관계성 단어를 ‘대한민국(5번)’보다 훨씬 즐겨 사용했다.

정동영 후보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1회, ‘평화’를 0회 사용한 반면, 이명박 후보는 ‘전쟁’을 5번, ‘평화’를 6회 언급했으며, 이회창 후보는 ‘평화’를 7회, ‘전쟁’은 1회 사용했다. ‘통일’을 가장 많이 언급한 후보는 이명박 후보(4회)였으며, 정동영 후보는 1회, 이회창 후보는 0회 사용했다. 남북을 함께 지칭하는 ‘한반도’는 이회창 후보가 5회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정동영 후보는 2회, 이명박 후보는 1회 사용했다. 이에 비해 ‘남북’은 이회창 후보 13회, 정동영 후보 11회, 이명박 후보 7회의 사용빈도를 나타내, 후보들은 ‘한반도’라는 지리적 지칭보다 ‘남북’이라는 정치적 용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외교 이슈와 관련되어 세 후보가 사용한 어휘를 비교·분석해보면, 단어 선택에서 후보별 특색이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사용한 단어는 그 자체로 정책적 특성을 담고 있는 고유 언어들이었으나, 다른 후보들이 받아 사용하지 않아서 소외된 단어로 남았다. ‘핵’이라는 중심 어휘조차 세 후보사이에 중요한 단어로 공유되지 않은 것처럼, 이들은 다른 핵심 단어들도 공유하지 않고 있었다. 이회창 후보가 7회나 사용한 ‘원칙’이라는 단어를 다른 후보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명박 후보의 ‘실용’, 정동영 후보의 ‘다자틀’같은 정책 관련 용어들도 다른 후보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표 1> 제17대 대통령선거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의 TV 합동토론 사용 어휘 분포 및 빈도

	23회	17회	15회	14회	13회	12회	11회	10회	9회	8회	7회	6회	5회	4회	3회	2회
이명박				핵	북한	대한민국					국민 남북 외교	검찰 평화	외교	중국 통일	역사 사람 도전	국익 기업 일본 헌법
정동영		이명박	외교				국민/남북	검찰		신뢰	대통령 한미	북미 핵	대한민국/평화	김경준 미국 변화	공조 부시 정책 해외 헌법 60년	4년 강경과 불능화 선진국 중입제 한반도
이회창	핵				남북				국민/북한	미국	원칙 평화		상호주의/한반도	관계 해결	대한민국/싱가폴	북미 연방제 외교 일본 정권 정당 한중 협정

그 밖에도 상호 공유되지 않은 단어는 이명박 후보가 사용한 ‘국익’, ‘선진국’, 이회창 후보의 ‘상호주의’, ‘강소국’, ‘연방제’, 정동영 후보의 ‘경제공동체’, ‘금강산’ 등이 있다. 그 결과 세 후보는 각기 다른 정책을 각기 다른 어휘로 이야기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단어의 선택을 통한 논의의 접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후보별 선택한 단어와 빈도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3) 후보별 단어 연결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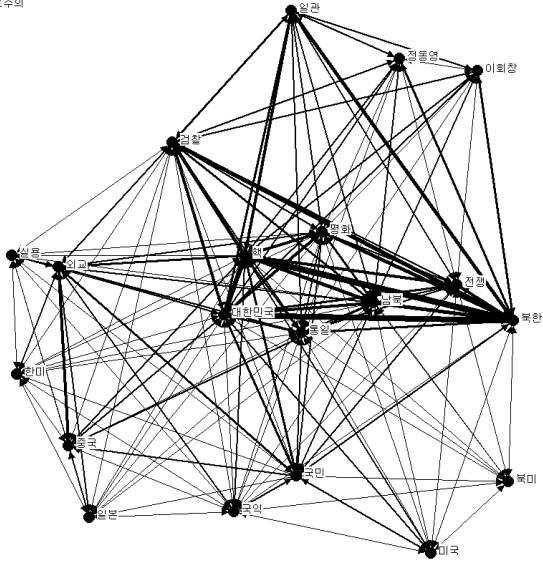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세 후보가 사용한 고유 단어 사이의 거리를 공출현 빈도에 따라 반복적으로 재배치한 공출현 단어 연결망을 UCINET 프로그램의 넷드로(NetDraw) 기능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도식화된 연결망은 앞서 검토한 중심논제의 접점 형성 적합성 여부와 단어 선택과 빈도에 따른 후보

간 특성을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후보 간 논증 구조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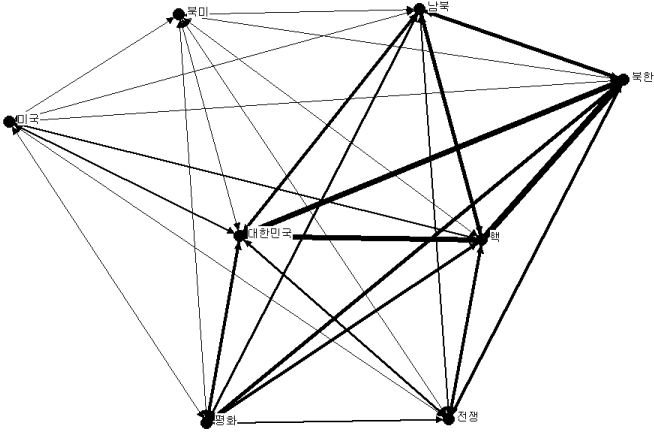
연구지는 각 후보별 사용횟수가 3회 이상으로 비교적 높거나 후보별 정책 기조의 핵심어 등을 포함하여 통일 외교 정책을 구성하는 단어 24개를 선정해 전체 토론에서 상호 후보들 간의 단어 공출현 빈도에 따른 연결망을 우선적으로 보았다(<그림 1-1> <그림 2-1> <그림 3-1>). 분석 결과 각 후보들이 사용한 단어들 사이의 연결망과 함께 연결망 외곽에 위치한 미사용 단어들이 추출되었다. 이명박 후보의 경우, 24개 단어 중에서 이명박, 원칙, 철학, 상호주의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정동영 후보의 경우는 원칙, 실용, 국익, 상호주의, 이회창 후보는 통일, 중국, 정동영, 검찰, 실용, 국익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미사용 단어들은 앞서 단어 빈도분석에서도 나타났듯 각 후보의 고유 의제가 토론자들 사이에 공유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연구지는 이와 함께 토론의 주제가 통일, 외교, 북한 문제였음에 주목했는데 토론 주제와 관련된 8개 단어, 즉 대한민국, 북한, 미국, 북미, 남북, 핵, 전쟁, 평화 등 관계성 단어들을 선별한 후, 이들 단어 사이의 연결망을 보았다(<그림 1-2> <그림 2-2> <그림 3-2>). 이 연결망은 북한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후보들의 논리 구성과 이슈 접근법을 보여준다. 긴밀하게 연결된 단어를 통해 주요국 간 관계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을 볼 수 있으며, 그런 인식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증거적 사실(evidential facts)들이 존재하는지를 통해 논증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세 후보는 각자의 정책 비전을 주로 미래 의지형 동사로 제시했고 주로 과거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실적 증거의 사용은 미미했다. 전체 토론을 통해 증거를 가장 많이 사용한 후보는 이명박 후보로 6회, 그 다음이 정동영 후보로 5회였으며, 이회창 후보는 2회 사용에 그쳤다. 이명박-정동영 사이의 사실적 증거 사용 횟수가 비슷한 것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중심으로 증거 구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나 외교 이슈에 대한 증거 사용은 여전히 미약하고 결과적으로 허약한 논증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각 후보별 단어 연결망은 다음과 같다.

- 이명박
- 원칙
- 철학
- 상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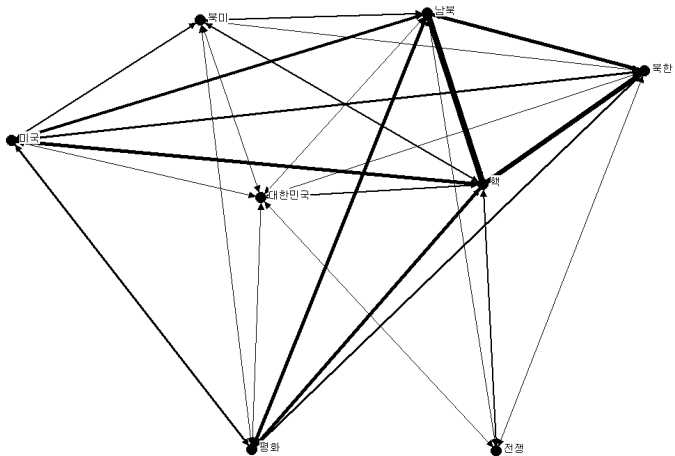
<그림 1-1> 이명박 후보 24개 단어 연결망



<그림 1-2> 이명박 후보 8개 단어 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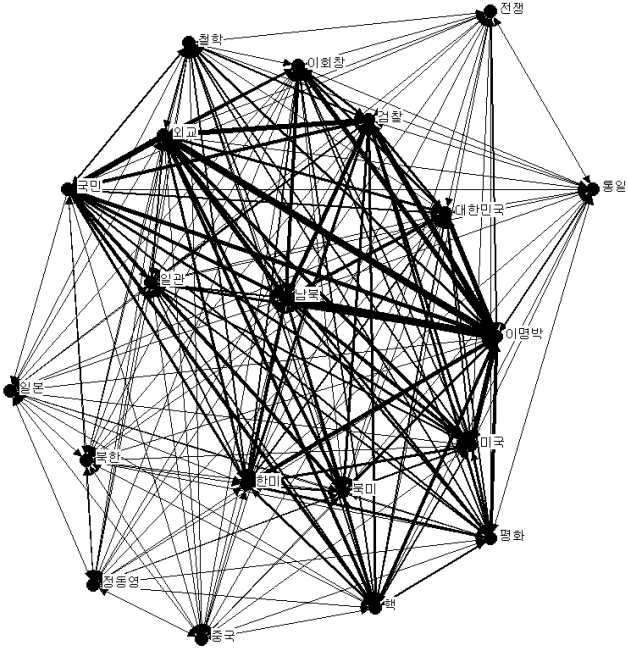
에서 사용한 데 비해, 미국은 그보다 공출현 빈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을 핵심 단어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이회창 후보와 같았으나, ‘핵’과 ‘미국’과의 거리가 먼 것은 두 단어의 공출현 빈도가 이회창 후보보다 낮은 것을 뜻한다. 또한 미국-전쟁 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보아, 이 후보가 말하는 전쟁과 평화는 북한과의 관계망에서 해석되는 단어들로 나타나고 있다. 단어 간 연결을 보면 북한과 핵이 가장 가깝고,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북한, 북한-평화, 북한-전쟁 순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이회창 후보의 24개 단어 연결망에서 정동영, 검찰, 실용 등의 단어가 미연결 구조로 분리되어 나온 것은, 검찰 조사 결과를 둘러싼 정동영-이명박 사이의 신뢰성 공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며, 이명박 후보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언급이나 공격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상호주의’, ‘철학’, ‘원칙’ 등의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비교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신의 논리를 독립적으로(independent) 구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이름 ‘이명박’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데 비해, 이회창 후보의 단어연결망 속에는 스스로를 지칭하는 ‘이회창’이 연결되어



<그림 2-2> 이회창 후보 8개 단어 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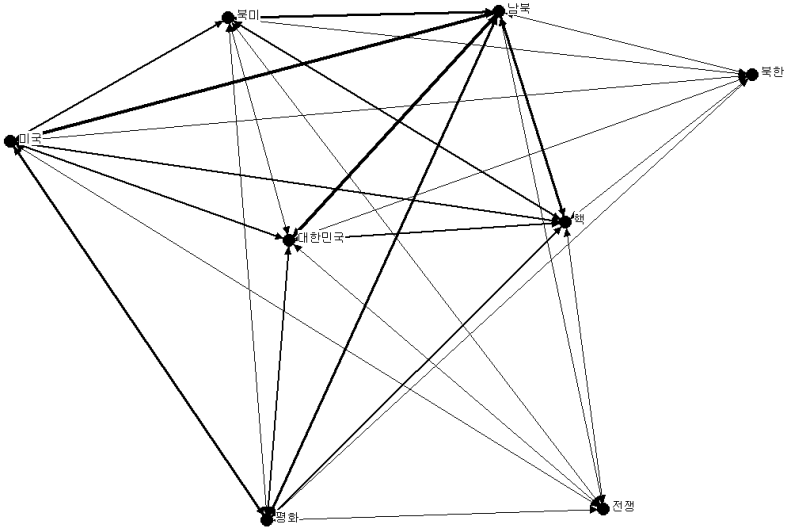
- 권력
- 실용
- 국민
- 상호주의



<그림 3-1> 정동영 후보 24개 단어 연결망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회창 후보는 가장 많이 사용한 ‘핵’이라는 단어와 함께 ‘남북’, ‘북한’, ‘미국’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이들 단어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상호연관을 짓고 있음이 분석결과 나타났다. 단어 간 연결을 보면 ‘남북’과 ‘평화’와 ‘북한’ 사이에 ‘핵’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핵’의 연결보다 ‘미국’-‘핵’의 연결이 더욱 견고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명박 후보와 구별되고, ‘미국’-‘평화’의 연결고리는 있는 반면, ‘미국’-‘전쟁’의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정동영 후보와도 구분되고



<그림 3-2> 정동영 후보 8개 단어 연결망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동영 후보의 단어 연결망 역시 이회창 후보를 겨냥한 ‘원칙’이나 이명박 후보의 정책기조인 ‘실용’이 미연결구조로 분리되어 단어 사용을 통한 이슈 접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후보 중 ‘핵’이라는 단어의 사용빈도가 6회로 가장 낮았고, 이명박(17회), 검찰(10회), 신뢰(8회), 대통령(7회)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함으로 인해 한반도와 외교 관련 단어의 사용 빈도는 두 후보에 비해 높지 않았다. 그러나 24개 단어 연결망에는 ‘이회창’, ‘이명박’이 ‘남북’, ‘외교’, ‘핵’ 등의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양 후보에 대해 공세적인(offensive) 입장을 견지해나갔음을 볼 수 있다. 정동영 후보는 상대의 언어로 상대의 이슈를 공격하기보다 자신의 언어로 토론을 주도하며 상대의 캐릭터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세 후보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토론을 펼친 후보로 분석된다.

외교 이슈와 관련된 단어 간의 연결을 보면, ‘남북’을 중심으로 ‘평화’-‘미국’-‘대한민국’이 자주 같이 언급되었으며, ‘핵’-‘대한민국’, ‘미국’-‘대한민국’

의 연결은 그보다 미약했다. ‘북한’과 ‘핵’의 연결도 뚜렷하지 않으며, ‘북한’과 ‘평화’는 연결되고 있는 반면, ‘북한’과 ‘전쟁’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전쟁’을 언급(1회)하며, 전후 근접한 맥락에서 북한과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17대 대통령 후보들이 TV 합동 토론회에서 상호 교환한 어휘군(群)의 사용 빈도와 연결망을 통해 접점(stasis) 형성 여부를 분석하고 정치 토론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이슈에 대한 후보별 입장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분석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07년 12월 6일 주최한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1차 TV토론회에서 여론조사 상위 후보 세 명인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후보가 발언한 내용을 대상으로 했으며, 분석의 단위는 후보들이 사용한 고유단어로 했다. 고유어의 개수는 이명박 후보 646개, 이회창 후보 627개, 정동영 후보 649개였다. 연구자는 그들이 사용한 단어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언어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하고, 도출된 결과에 대해 수사 분석(rhetorical analysis)을 실시하여 중심논제와 단어 사용을 통한 접점의 형성과 후보별 이슈구성의 논증 구조를 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전반적으로 방어적(defensive), 정동영 후보는 공격적(offensive), 이회창 후보는 독립적(independent) 수사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지도와 포맷에 따라 후보 간 설득적 전략이 차이를 보인다는 김관규·박연진(2007)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 최윤선(2003)은 16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사용한 언술을 분석해 이회창 후보는 당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탈개인화 전략을, 노무현 후보는 개인화 전략을 각각 구사하는 것으로 밝혔는데, 17대 대선에서 지지도가 낮은 당의 후보로 다시 나선 이회창 후보가 독립적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결과는 흥미롭다. 또한 세 후보의 상호토론에는 정책 토론이 본래 지향하는 상호이해의 구성요건인 접점의

형성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간 토론에서 충돌(clash)이 부족하다는 발견은 이미 송종길(2004)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명박·이회창 후보가 핵심 단어로 ‘핵’을 구사하면서 논의의 접점을 이루는 듯 했으나 상호 논쟁이 불필요한 이슈(admitted issue)로 처리하면서 논리나 단어의 충돌을 피해나갔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이한 입장을 보였음에도 두 후보가 어떠한 사실적 증거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슈 간 접점을 피해갔다. 이는 두 후보가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함께 한다는 믿음 하에 세부적인 차이에 논점을 두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이회창 후보와 북한 정책에 대한 철학적 기조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는 정책적 접점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정동영 후보가 자신의 통일 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이 상대 토론자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당초 적극적 논쟁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거나, 제한된 시간에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느라 정책적 논쟁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 후보의 전체 토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 사이에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진실 및 도덕성 공방이었다. 정동영 후보는 최다빈도 단어로 ‘이명박’을 선택한 데 이어 ‘검찰’ ‘신뢰’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고, 이명박 후보 역시 ‘검찰’의 조사결과를 사실적 증거로 거론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책 논쟁이 아닌 캐릭터 논쟁으로 토론의 성격이 변질되면서 이슈 간 접점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는 캐릭터 공세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의 정책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책적 공세를 취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어서 역시 이슈 간 접점을 형성하지 못했다.

토론의 중심 논제는 반실(Vancil)이 제시한 효과적인 논증을 도출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합동 정견발표를 유도하는 데 그쳤고, 주요 정책 단어들의 교호(交互)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보들이 구사하는 어휘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고 있었다. 이명박 후보가 사용한 실용, 국익, 선진국

등의 단어가 다른 후보들과 공유되지 않았으며, 이회창 후보의 상호주의나 원칙, 강소국, 연방제, 정동영 후보의 경제공동체, 금강산, 다지틀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로 후보들이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

후보들이 공통으로 사용한 북한과 통일 외교 관련 8개 단어의 공출현 분석 결과는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북한문제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명박 후보는 북한 문제를 남한과의 상대성에서 파악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회창 후보는 한-미간의 관계 틀 안에서 북한 문제를 고려하고 북한문제와 핵문제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동영 후보는 북한의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 개념화하고 북한과 전쟁을 연결 짓지 않는 등의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접점’은 토론자들 사이에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대중들이 후보들의 공손전략이나 캐릭터를 관전할 수 있는 개념적 장소이다. 효과적인 토론을 위한 조건으로 맥콜(McCall, 1984)은 후보들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접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을 들고 있다. 파우(Pfau, 1983) 역시 향후 후보 토론을 위한 제언으로 질문이 후보들 간의 충돌(접점)을 유발하도록 던져져야 한다며(Hellweg, p.38) 위에 언급한 개념적 장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중들이 주로 토론자간 논리와 증거가 맞부딪치는 접점을 관전하며 설득과 교육의 효과를 얻는다는 이론적 바탕과 실제적 현실에 비추어, 17대 대통령후보들의 합동 토론은 대중 설득과 정책 이슈의 홍보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질적 분석인 수사 분석의 방법론적 특성상 단어의 선별이나 해석 등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임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보완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1차 분석 데이터를 구하였으나, 그 역시 질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는 1회성 정치 이벤트에서 후보들이 사용한 단어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향후 연구에서 선거기간 후보들의 통합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단어 분석을 하면 정책적 기조와 논리와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연구들은 미디어로서 토론의 영향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텍스트 해석, 토론의 이미지 매니지먼트 전략, 토론의 제도적 법적 측면 등으로 토론 연구의 지평을 넓혀갈 것을 제안한다.

Ⅰ 참고문헌

- 권혁남 (1998). 한국의 대통령선거 TV토론모델 개발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1호, 85~107.
- 김관규·김춘식 (2008).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TV토론의 설득적 전략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8권 2호, 51~83.
- 김관규·박연진 (2007). TV토론에서의 후보 지지도와 토론 포맷에 따른 설득 전략의 차이—설득적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1권 3호, 47~87.
- 김관규·구교태·이준웅 (2006). 후보의 텔레비전토론 효과 연구: 2006년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6권 4호, 51~88.
- 김응숙 (2002). TV토론 프로그램의 논쟁유형과 설득전략에 관한 연구—지상과 3사 주최 ‘2002 대선 후보초청 TV토론회 분석’. 『프로그램 텍스트』, 제7호, 51~101.
- 김재범 (2002). 2002년 대선 예비후보자 TV토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치홍보적 성격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제4권 1호, 146~172.
- 김춘식·전영란 (2006). 1997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텔레비전 토론 수사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6권 1호, 75~114.
- 김환열 (1999). TV토론 시청자의 후보자 변인 인식—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2권 2호, 129~155.
- 남인용·박한우 (2007). 대권 예비후보자 관련 신문기사의 네트워크 분석과 홍보전략.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1호, 79~107.
- 박석준 (2002). 선거 후보자 간 TV 생방송 합동 토론 대화에서 사용되는 대화 전략에 대하여—이미지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11권, 155~180.

- 박용익 (1997). 텔레비전 정치 토론회의 대화분석—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예로 『텍스트언어학』, 제4권, 139~166.
- 박한우 & Leydesdorff, L. (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권 5호, 1377~1388.
- 송종길 (2003). 대통령 후보 TV 합동토론 형식(format) 비교 연구: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최 합동 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2권, 107~131.
- _____ (2004). 2002년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나타난 수사학적 토론전략 연구: 후보자의 설득적 공격과 방어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8권 2호, 108~138.
- _____ (2006). 공직후보 TV토론 이용 동기가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식과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6호, 440~461.
- 이강형 (2007). 인지 일관성 이론에 근거한 텔레비전 후보 토론회의 효과: 합리적 투표, 설득, 선택적 지각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1권 1호, 272~304.
- _____ (2004).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효과: 제16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 패널 조사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8권 2호, 346~347.
- 이강형·김춘식·양승찬·권혁남 (2004). 후보 결정에 대한 TV토론의 영향력에 있어서 정치 환경의 역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캠페인. 『한국방송학보』, 제18권 3호, 51~90.
- 이관열 (1997). 미디어크라시 시대 TV토론의 역할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36권, 87~112.
- 이종수 (1995). TV토론과 미디어 정치: 95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 TV토론회를 중심으로. 『저널리즘 비평』, 제16권, 4~25.
- 이준웅 (1998). 후보 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한국언론학보』, 제43권 2호, 243~284.
- _____ (1999). 텔레비전 토론의 정치적 영향력—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2권, 253~297.

- _____ (2003).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 이미지, 이슈 근접성, 후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곡논총』, 제 34권(하), 285~331.
- 이현숙 (2006). TV토론 노출, 유권자 만족도와 투표의향 관계 모형. 『정치정보연구』, 제9권 1호, 47~66.
- 이효성 (1993). 공명선거와 텔레비전 토론—문제의 관건은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다. 『저널리즘 비평』, 제9권, 58~67.
- _____ (1997). 대통령 선거와 텔레비전 토론. 서울: 나남.
- 임규홍 (2001). TV토론에서 “발언권 주고 빼앗기”의 담화분석. 『담화와 인지』, 제8권 2호, 181~203.
- 임태섭 (2001). 텔레비전 토론의 포맷과 절차에 대한 비교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9권, 198~224.
- 정성호 (2003). TV토론이 유권자의 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 16대 대통령선거 TV토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7권 6호, 220~250.
- 정인숙 (1998). 15대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보도 형태: 인물품평회에 그친 TV 합동토론회. 『저널리즘 비평』, 제23권, 20~25.
- 최윤선 (2003).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언술전략 분석: 세 후보 TV 합동 토론회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3권 3호, 163~198.
- _____ (2005). 미국, 프랑스, 한국의 정치담화 내용분석: 대통령 선거 TV토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5권 3호, 658~681.
- 한국방송개발원 (1997). 대선텔레비전토론 방송 연구.
- 황 근 (1999). 다시 생각해보는 TV토론의 본질과 형식. 『한국방송학회 99년 봄철 정기 학술대회』, 197~206.
- Ang, I. (1991). *Desperately Seeking the Audience*. New York: Routledge.
- Auer, J. J. (1960). The Counterfeit Debate in S. Kraus(Ed.), *The Great Debates: Kennedy vs. Nixon*,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Baker, K. L. & Norpoth, H. (1981). Candidates on television: The 1972 electoral debates in West Germany. *Public Opinion Quarterly*, 45, 329~345.
- Barber, B. (1984).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rnett, G. A. & Woelfel, J. (1988). *Readings in Galileo system: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Dubuque, IA: Kendall/ Hunt.
- Benoit, W. L. & Airne, D. (2005). A functional analysis of American Vice Presidential Debates. *Argumentation and Advocacy*, 41(Spring), 225~236.
- Benoit, W. L., Blaney, J. R. & Pier, P. M. (2000). Acclaiming, attacking, and defending: A functional analysis of nominating convention keynote speeches, 1960~1996. *Political Communication*, 17, 61~84.
- Benoit, W. L. & Brazeal, L. (2003). A functional analysis of the 1988 Bush-Dukakis debates. *Argumentations and Advocacy*, 39, 219~233.
- Benoit, W. L. & Wells, W. T. (1996). *Candidates in conflict: Persuasive attack and defense in the 1992 presidential debates*. Tuscaloosa, AL: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Best, S. J. & Hubbard, C. (1999). Maximizing Minimal Effects: The Impact of Early Primary Season Debates on Voter Preference.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7, 450~467.
- Bitzer, L. & Reuter, T. (1980). *Carter vs. Ford: The counterfeit debates of 1976*.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Carlin, D. P. (1992). Presidential debates as focal points for campaign arguments. *Political Communication*, 9, 251~265.
- Chaffee, S. H. (1975). *Political communication*. Beverly Hills, CA: Sage.
- _____ (1979). Approaches of U.S. scholars to the study of televised political debates. *Political Communication Review*, 5, 19~33.
- Collins, A. M. & Quillian, M. R. (1972). Experiments on semantic memory and language comprehension. IN Gregg, L. W. (ed.), *Cognition in learning and memory*(pp.117~138). New York: Wiley.
- David, D. K. (1979). Influence on Vote Decisions, In *The Great Debates, Carter versus Ford*, 1976, Edited by Kraus, S. 331~347,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Influence on Vote Decision, In *The Great Debates: Carter versus Ford*, 1976, Kraus (ed.), 331~347,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Doerfel, M. L. & Barnett, G. A. (1999).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e

-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5(4), 589~603.
- Doerfel, M. L. & Marsh P. S. (2003). Candidate-Issue Positioning in the Context of Presidential Debate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31(3), 212~237.
- Drucker, S. J. (1989).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 new tradition. Paper presented at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San Francisco, CA.
- Ehninger, D. & Brockriede W. (1963). *Decision by Debate*, New York: Dodd, Mead.
- Ellsworths, J. W. (1965). Rationality and Campaigning: A content analysis of the 1960 presidential campaign debates.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43, 794~802.
- Fahnestock, J. R. & Secor, M. J. (1983). Grounds for Argument: Stasis Theory and Topoi, In *Augument in Transition: Proceedings of the Third Summer Conference on Argumentation*, Annandale, VA,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 Freeley, A. J. & Steinberg D. L. (2005). *Argumentation and Debate: Critical Thinking for Reasoned Decision Making*, Thomson Wadsworth.
- Gallup Opinion Polls (1994a, October 12). Roper Center at University of Connecticut: Public Opinion Online.
- Geer, J. G. (1988). The Effects of Presidential Debates on the Electorate's Preference on Candidate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16, 486~501.
- Hart, R. P. (1997). *Rhetorical Criticism(2nd ed.)*. Allyn and Bacon.
- Hellweg, S. A., Pfau, M. & Brydon, S. R. (1992).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dvocacy in contemporary America*. Westport, CT: Greenwood.
- Jamieson, K. H. (1992). *Dirty politics: Deception, distraction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mieson, K. H. & Birdsell, D. S. (1988). *Presidential Debates: The Challenges of Creating an Informed Elector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ust, M., Crigler, A. & Wallach, L. (1990). Thirty seconds or thirty minutes: What viewers learn from spot advertisement and candidates debates. *Journal of Communication*, 40(3), 120~133.

- Kelley, S., Jr. (1962). Campaign debates: Some facts and issues. *Public Opinion Quarterly*, 26, 351~366.
- _____ (1983). *Interpreting Elec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raus, S. (2000).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public policy*(2n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asch, C. (1990). Stop Making Sense, *NewsInc*, December, 23~25.
- Lazarsfeld, P. & Merton, R. (1948). Mass Communication, Popular Taste, and Organized Social Action, in *Mass Communication and American Social Thought: Key Texts 1919~1968*(2004), Eds. John Durham Peters & Peter Simonson.
- Lemert, J. B. (1993). Do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Help Inform Voter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37, 83~94.
- Lim, E. T. (2002). Five Trends in Presidential Rhetoric: An Analysis of Rhetoric from George Washington to Bill Clinton.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June. 328~366.
- Lee, C. & Benoit, W. (2005). A Functional analysis of the 2002 Korean presidential debate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15(2), 115~132.
- Leydesdorff, L. (2003). *A sociological theory of communication: The self-organization of the knowledge based society*. Universal Publishers.
- McBurney, J. H., H'Neill, J. M. & Mills, G. E. (1951), *Argumentation and debate: Techniques of a free society*, New York: Macmillan.
- McKinney, M. S. & Carlin, D. B. (2004). Political campaign debates. In Kaid, L. L. (ed.), *Handbook of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pp.203~234). Mahwah, NJ: Lawrence Erlbaum.
- McLeod, J. M., Bybee, C. R. & Durall, J. A. (1979). The 1976 presidential debates and equivalence of informed political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search*, 6, 463~487.
- Morello, J. T. (1990). Argument and visual structuring in the 1988 Bush-Dukakis presidential campaign debates. Paper presented at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Chicago, IL.
- Mortensen, C. D. (1968). The influence of television on policy discussion. *Quarterly Journal of Speech*, 54, 277~281.

- Newcomb, H. M. & Hirsch, P. M. (1984). Television as a Cultural Form: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Rowland, W. D. & Watkins (eds.), *Interpreting Television: Current Research Perspectives*, Beverly Hills, Cal.: Sage.
- Pfau, M. (1988). Intra-Party Political Debate and Issue Learning.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16, 99~112.
- _____ (2002). The subtle nature of presidential debate influence. *Argument and Advocacy*, 38(Spring), 251~161.
- Plato, Phaedrus, trans. by Alexander Nehamas and Paul Woodruff. From *Plato: Complete Works*, ed. by John M. Cooper.
- Price, M. E. (1995). *Television: The Public Sphere and National Identity*, Oxford: Clarendon Press.
- Ritter, K. & Gibson, J. (1981). The quality of the 1980 presidential forums: A revisionist position on presidential debates. Paper presented at the Western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onvention, Chicago, IL.
- Sears, D. O. & Chaffee, S. H. (1978). Uses and effects of the 1976 debates: An Overview of Empirical Studies. In Kraus, S. (ed.), *The great debates: Carter vs. Ford, 1976*.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Tiemens, R. K., Hellweg, S. A., Kipper, P. & Phillips, S. L. (1985). An integrative verbal and visual analysis of the Carter-Reagan debates. *Communication Quarterly*, 33, 34~42.
- Trent, J. S. & Friedenberg, R. V. (2000). *Political Campaign Communica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4th ed. Westport, Conn.: Praeger.
- Vancil, D. (1986). *Rhetoric and Argumentation*, Allyn and Bacon.
- Wasserman, S. &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aver, R. (1953). *The Ethics of Rhetoric*, Chicago: Henry Regnery.

(투고일자: 2008.11.30, 수정일자: 2009.01.08, 게재확정일자: 2009.01.17)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Presidential Debates in 2007 Election in Korea

Sung-Hee Park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Media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Presidential TV debates serve as an important instrument for the general viewers to evaluate the candidates' character, to examine their policy, and finally to make an important political decisions to cast ballots. Every words candidates utter in the course of entire election campaign exert influence of a certain significance by delivering their ideas and by creating clashes with their respective oppon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ual venue, coined as 'stasis' by ancient rhetoricians, in which the clashes take place, and examines the words selection made by each candidates, the manners in which they form stasis, call for evidence, educate the public, and finally create a legitimate form of political argumentation.

The study applied computer based content analysis using KrKwic and UCINET software to analyze semantic networks among the candidates. The results showed three major candidates, namely Lee Myung Bak, Jung Dong Young, and Lee Hoi Chang, displayed separate patterns in their use of language, by selecting the words that are often neglected by their opponents. Apparently, the absence of stasis and the lack of speaking mutual language significantly undermined the effects of debates. Central questions regarding issues of North Korea failed to meet basic requirements, and the respondents failed to engage in effective argumentation process.

Key words: presidential election, TV debates, North Korea, semantic network analysis